



남원소방서,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구조 총력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남원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해 인명구조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며, 8일 오전 4시 경 산동면 대상리 산사태로 고립된 주민 21명 구조 등 65건 출동해 105명을 구조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심하게 침수된구면 상귀리 일대 마을 주민 구조에 나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등으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며, 10일 현재 가용 소방관 전원을 근무자로 편성해(장비 104대 357명)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 및 피해방지와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김광수 소방서장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폭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조치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수해복구에 '구슬땀'

사진/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수해복구에 구슬땀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는 지난 9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노암동의 살림어린이집에서, 내부로 밀려들어난 토사를 치우고 교구·장남감 등의 집기를 세척하는 등 어린이집이 하루빨리 복구 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200여명의 이재민이 대피하고 있는 금지면 문화누리센터를 찾아 배식봉사를 하는 등 각 지역에서 장비로는 해결할 수 없어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 수해 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순복 여성가족과장은 내 일처럼 나서주는 회원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관촌면, 민관협력 침수 피해가구 복구 봉사

임실군 관촌면에서는 지난 9일 관내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방문해 자원봉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였다.

지난 7일부터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9일 오전까지 관촌면에는 448.5mm의 많은 비가 내려 지역민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관촌면행정복지센터(면장 배경한)를 비롯하여 관촌면 행복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남), 관촌면 남·녀 의용소방대(대장 김택경·이상숙), 관촌면 자원봉사회(회장 김보숙) 관촌면 적십자회(회장 김영자), 일반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하며 신속한 침수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임실=진종영 기자

“우리 동네 희망은 우리가 만든다!”

무주군, '무주읍 평촌마을 1읍·면 1촌 맺기' 시동

무주군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이달부터 복지1촌 만들기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추진되는 복지1촌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1읍면 복지1촌 맺기 사업대상지로 평촌마을이 선정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주민들이 공동 기획하는 등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찾아내어 함께 추진함으로써 소통과 상생의 조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더욱 의미가 있다는 주민들의 한목소리다.

마을주민들은 이번 복지1촌 만들기 사업명을 '우리 동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요'로 정했다. 지난달 모임을 통해 사업명과 사업 일정을 잡았다.

주민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중 평촌마을회관에서 평촌마을 화합 대잔치를 열기로 잠정 의견을 도출해 냈다.

화합대잔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장기자랑과 먹거리 나눔 행사를 펼치면서 주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9월중에는 주민들의 손으로 마을 내 '평촌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공동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수능골 소하천 정미터널' 조성사업으로 정했다.

정미터널을 만들어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조성될 정미터널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휴식 및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가정 10세대를 선정하고 협의체 위원 간 1대1 결연을 통한 복지1촌을 맺고 가구별로 월 2회 이상 정기 방문을 하며 친분 쌓기와 안부확인 등 적극적인 돌봄 사업을 펼친다.

한편 무주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1촌 만들기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되고 알찬 결과를 맺기 위해 마을소통과 주민공동체 강화, 돌봄 방문 지원 등에 대해 결 과보고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에서 '수능골 소하천 정미터널' 조성사업으로 정했다.

정미터널을 만들어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조성될 정미터널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휴식 및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가정 10세대를 선정하고 협의체 위원 간 1대1 결연을 통한 복지1촌을 맺고 가구별로 월 2회 이상 정기 방문을 하며 친분 쌓기와 안부확인 등 적극적인 돌봄 사업을 펼친다.

한편 무주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1촌 만들기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되고 알찬 결과를 맺기 위해 마을소통과 주민공동체 강화, 돌봄 방문 지원 등에 대해 결 과보고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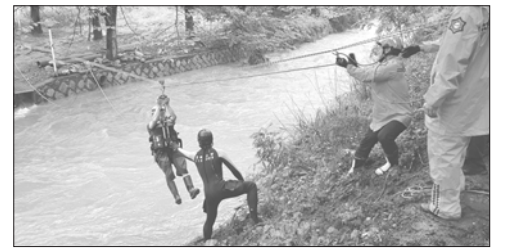


전북서부보훈지청 처 창설 제59주년 기념행사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최정길)은 10일 처 창설 제5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청렴결의대회, 오찬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보훈업무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정길 지청장은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무진장소방서, 집중호우·강풍 현장에서 맹활약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비구름대가 남부권과 중부권을 오르내리면서 물 폭탄을 쏟아 붓고 있는 호우경보 기간 인명구조 및 급·배수지원과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서에 의하면 이번 호우경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415명과 장비138대를 동원하여 무주군 용포리에서는 농작물 비 피해를 살펴보고 하천 건너 과수원에 갇든 마을주민 5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어 헬기를 이용하여 구조하는 등 총 18명의 인명구조를 실시했다.

또한 관내 아파트와 시설, 주택 등 침수지역에 28건(10톤)에 급배수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산사태 및 침수 등 피해현장에 출동하여 지붕붕괴, 하천범람현장에서 떠밀려온 토사에 움직이지 못하는 침수차량 이동조치, 도로가에 쓰러진 나무 제거, 임시 제방 쌓기, 침수된 주택·도로등에 대해 68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지역, 민·관·군 수해복구에 총력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노암동 지역에 민관군이 하나되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서목 육군참모총장, 김전석 35사단장 등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노암동 3동 마을 및 살림어린이집을 방문해 수해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주민들과 군 장병들을 위로했다.

이곳은 지난 7~8일 밤에 주춧돌이 넘치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막대한 비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침수로 인해 도로에 토사유출 및 가옥에 침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군에서는 정병 70여명을 지원해 신속한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양용목 노암동장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곳은 지난 7~8일 밤에 주춧돌이 넘치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막대한 비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침수로 인해 도로에 토사유출 및 가옥에 침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군에서는 정병 70여명을 지원해 신속한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익산 신동지구대, 집중 호우 속 주민 보호 선찰(先察)활동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신동지구대는 익산 등 전북 지역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 우려가 예상되는 장소를 선제적 점검, 조치로 주민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힘쓰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장마철 집중 호우에 따른 각 권역별 중요 목 중심 거점 근무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유지와 함께 익산대로, 무왕로 등 관내 주요 도로 중심 도로 침수, 하수 역류 등으로 인한 교통 위험 요소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순찰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힘쓰고 있다.

신동지구대에서는 주민 안전 확보 유지를 위해 3회 치안 활동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선찰(先察), 선제(先制), 선결(先決) 활동이 그것으로 기다리지 않고 예방적 차원 안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임성재 익산서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와 사전 침수 우려 지역 점검으로 주민 피해 방지 활동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순창소방서, 잇따른 비 피해로 소방활동 총력

순창소방서는 주말동안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해 소방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이번 주말동안 순창군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 및 침수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인명구조 14건, 배수지원 31개소, 급수지원 4개소, 안전조치 16건, 기타 9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지난 8일 향가 오토캠핑장 부근 도로상 나무가 쓰러져 있어 교통 장애로 도로상 나무 제거 및 안전조치, 구림면에서는 주택침수로 주택 기벽이 무너지며 9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며, 순창읍 한 주택에서 물이 배꼽까지 찬 상태로 집안에 3명이 고립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피소 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